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금융, 미국/EU/러시아】 G7, 러시아 주요 은행의 SWIFT 시스템 배제 결정

【금융, 러시아/중국】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SWIFT 제재에 대한 중국내 의견

【희토류, 미국】 美 정부, 민간 기업과 손잡고 중(重)희토류 경쟁력 강화에 7.35억달러 투자

【석탄, 중국】 중국 정부, <석탄시장 가격형성 메커니즘 개선 통지> 발표 (2.25 국가발전개혁위)

【팜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 팜유 수출제한 및 내수 공급 의무 부과

【자동차, 중국/한국】 중국 지리자동차, '23.6월부터 한국GM 군산공장에서 1.5t 전기트럭 생산 계획



GVC 뉴스 더하기

- 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미국 및 주요국의 對러 제재
- ②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 기업 영향
- ③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물류에 미치는 영향



GVC 기초상식

글로벌 가치 사슬(GVC)과 공급망 관리(SCM)



GVC 돋보기

'알루미늄' 품목의 GVC 분석



GVC 전문가

- ① 김바우 등('원자재 가격상승의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21.11) 보고서 요약)
- ② 요시 세피(MIT대학 교수) 인터뷰 요약 (조선일보 Weekly Biz '22.1.7.)



GVC 소식통

- ① '글로벌 공급망(GVC) 분석센터' 출범
- ② '글로벌 공급망(GVC) 분석센터' 활용 방법
- ③ 산업부 및 유관기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기업 지원체계 가동 중
- ④ 'EU 공급망실사법' 대응 웨비나 개최



더 찾아보기

- ① '지리의 힘(팀 마셜)을 통해 본 우크라이나 위기
- ② 유익한 유튜브 채널 소개
- '김지윤의 지식 play', '조승연의 탐구생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최신 GVC 해외 이슈

● [금융, 미국/EU 등] G7, 러시아 주요 은행의 SWIFT 시스템 배제 결정

- *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 1만 1천개의 세계 금융기관/기업이 사용하는 보안 수준이 높은 전산망으로, 세계 금융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의 역할
-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현지시간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러시아를 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기로 결정. SWIFT는 1만 1천개가 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망으로, SWIFT에서 배제되는 것은 국제 금융체계로부터의 고립을 의미
- 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은 수출대금 회수 및 수입대금 지불 등 해외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수출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한편,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이 외에도 기업인 자산동결, 해외자금 조달 중단,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동결, 핵심기술 수출통제 등을 통해 러시아 경제 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있음. EU는 러시아 정유시설 개량에 필요한 장비.기술과 항공기 및 부품 수출 금지, 반도체와 기타 첨단 기술에 필요한 기술접근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2차 제재에도 합의

출처 : 한국무역협회, 언론보도 종합

● [러시아 SWIFT, 중국]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SWIFT 제재에 대한 중국내 의견 (2.26 북경청년보 등)

- 판허린(盤和林) 공업정보화부 정보통신경제전문가위원회 위원은 동 조치가 실제 시행된다고 해도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인 바, 러시아가 중국 CIPS* 등 제3자 결제시스템을 통해 교역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 CIPS(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소위, 중국판 SWIFT)
- 텐펑(天風)증권 역시 금번 SWIFT 제재가 위안화 국제화 추진 및 CIPS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흥하오 BOCOM International 총경리는 유럽이 대부분의 에너지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구도가 단기 내 변화되기는 어려운 바, 러시아가 SWIFT에서 배제될 경우 러시아와 대다수 유럽국은 탈달러화를 통해 에너지 교역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결국 달러 패권이 와해되기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

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2.28 중국 일일경제 동향

● [희토류, 미국] 美 정부, 민간 기업과 손잡고 중(重)희토류 경쟁력 강화에 7억 3500만달러 투자

- 2월 22일 美 정부와 美 희토류 기업 MP 머티리얼즈는 각종 모터의 핵심 부품 제조에 필수적인 중(重)희토류 확보를 위한 투자를 발표하였음. 정부가 업체에 3500만달러(약 417억원), 기업이 자체적으로 7억 달러(약 8344억원)를 투자하는 총 8700억원 규모의 희토류 개발 계획임
- 미국은 해당 투자를 통해 2024년까지 첨단산업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며, 미국은 수십 년 만에 희토류의 채굴과 선광, 제련에 이르는 희토류 공급망의 전 생산 라인을 다시 구축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출처 : Bloomberg, 조선일보

● **【석탄, 중국】 중국 〈석탄시장 가격형성 메커니즘 개선 통지〉 발표 (2.25, 국가발전개혁위)**

- 2월 2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석탄시장 가격형성 메커니즘 완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통지에 따르면 석탄은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품으로 석탄 가격이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하도록 할 것임
- 시장에서 석탄 가격을 결정하되,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조짐이 보일 경우, 〈가격법〉에 따라 가격 개입 조치를 즉시 가동하여 합리적 구간을 회복하도록 유도할 계획
- * 〈가격법〉 30조에 따르면, 중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조짐이 보일 때, 국무원 및 성.구.시. 인민정부는 가격 제한, 이윤율 제한 등 개입 조치 시행 가능
- 다년간 시장 운영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최근 천황다오(秦皇島)항 석탄(5,500Kcal)의 중장기 거래가는 톤당 570위안~770위안(세금포함)(한화 약 108,000~146,300원)이 적정 수준이라고 발표

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2.28 중국 일일경제 동향

● **【팜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제한 및 내수 공급 의무 부과**

- 국제 팜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팜유를 주원료로 생산되는 식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1월 말부터 팜유 수출에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고 내수 공급을 우선으로 전환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식용유 가격은 작년 초 리터당 1만 4천 루피아(약 1천166원)에서 올해 초 2만 루피아(약 1천676원)로 47%가량 상승하였음. 볶거나 튀긴 음식을 선호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식용유 가격은 민심과 직결되는 품목 중 하나
- 자국 내 식용유 가격이 약 50%상승한데 비해 팜유의 국제 가격은 2018년 말 대비 올해 초 세 배 가까이 상승하였음. 이에, 생산업자들이 수출에 집중하며 자국 업체 공급을 줄이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 수출량의 20%를 내수시장에 킬로그램 당 세금 포함 9천300루피아(약 780원) 이하에 공급할 의무를 부과

출처 :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 **【자동차, 중국】 중국 지리자동차, '23.6월부터 옛 한국GM 군산공장에서 1.5t 전기트럭 생산 계획**

- 중국 민영 완성차 1위 업체인 지리(吉利)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부품사인 명신그룹과 손잡고 '23.6월부터 한국GM 군산공장에서 1.5t 전기트럭 초기 물량 연 4천 대를 생산, 판매할 계획을 발표
- 두 회사는 금년 6월 중국 현지에서 출시될 소형 전기트럭 상샹(e51)에 기반하여 한국 맞춤형 모델을 개발하여 내년 6월부터 생산할 계획. 이후 물량을 늘리는 한편, 8t 전기트럭과 전기픽업트럭까지 한국형으로 개발해 군산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
- 이에 현대차는 전기 상용차 라인업을 늘려 대응할 계획. 앞서 '25년까지 상용차 라인업을 17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전기차 1종→7종, 수소전기차 1종→10종)
- 전문가에 따르면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 부문에서는 중국과 기존 자동차 강국들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으며 한국업체들이 제조 원가를 낮추고 기술을 보강하지 않으면 중국 전기차에 고전할 수도 있다고 함

출처 : 한국경제, 2.24. '中 자동차의 역습...韓서 전기트럭 만든다'



GVC 뉴스 더하기 ① : 라-우 사태 관련, 미국 및 주요국의 對러 제재

● 미국, 2월 24일 「對러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對러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 이는 57개의 품목 및 기술*에 대한 對러 수출을 미국 독자적으로 통제하는 방향임
 - ①전자(반도체), ②컴퓨터, ③정보통신, ④센서·레이저, ⑤항법·항공전자, ⑥해양, ⑦항공우주 등 7개 분야 기술
- 對러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심사시, 거부정책(policy of denial) 적용
 - 단, 항공기 및 여객기 안전,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한 수출에 대해서는 사전별 심사 후 허가
- 러 국방부 포함, 군사용과 관련된 49개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등재하여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 제한
- 특정 미국산 기술·S/W를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을 규제하는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실시로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까지 수출 통제
 - 단, 상무부 통제리스트(CCL)에 등재되지 않은 일반소비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나, 최종 용도가 군용인 경우 FDPR 적용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이란?

- 美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미국의 기술, 소프트웨어, 장비를 활용해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을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칙
- 美 산업안보국(BIS)는 2020년 8월 17일 화웨이 및 계열사를 상대로 해외직접생산규칙 (Foreign Direct Product Rule)을 보완. 이로써 미국의 기술, 소프트웨어, 장비를 10% 이상 사용한 부품 또는 완제품을 화웨이 및 계열사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
- 2020년 9월 15일부터 삼성과 SK의 스마트폰용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화웨이 납품 중단

● 주요국의 對러 경제제재 조치 도입 현황

국가	발표일	제재 내용
미국	1차 (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군 관련 금융기관 2곳(VEB, PSB)에 미국 내 자산동결 및 거래 금지 • (인사) 푸틴 측근 인사 3인에 대한 자산동결, 여행제한 등 • (국채) 미국인의 러시아 신규 국채 거래 참여 금지 (러 중앙은행, 국부펀드, 재무부 등 대상)
	2차 (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러시아 메이저 은행의 국제 거래, 미국 내 자산 및 거래 동결 • (기업) 러시아 국영기업 13곳의 주식·채권 거래 금지 • (인사) 러시아 부정부패 고위인사 10명 미국 내 여행금지 • (기타) 러시아 군부와 협력한 벨라루스 국영기업 및 인사제재 • (국방/기술 수출) 국방 관련 및 러시아의 첨단기술 산업 발전 필요한 기술제품 수출금지 • (글로벌) 미국 포함 동맹국(EU,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500억 달러 규모 對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3차 (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푸틴 대통령,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을 개인제재 대상에 등재 • (글로벌) 러시아 은행의 SWIFT 배제 * 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EU	(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EU 금융시장에서 국채발행 등 자금조달행위 금지, 3개 은행 자산동결 • (교역)·EU와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지역과의 교역 금지 • (인사) EU 제재 목록에 등재된 개인이나 단체의 EU 내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등
독일	(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노드스트림-2 천연가스관 사업 인가 보류
영국	(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러시아 주요 5개 은행의 영국 내 자산동결, 금융거래 금지 • (인사) 주요 인사 3인의 영국내 자산동결, 이들 소유기업과 거래금지
캐나다	(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지역과의 금융거래 금지, 러 국채거래 금지 • (인사)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독립승인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개인제재
호주	(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러시아 주요 7개 은행과 호주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 (인사) 러시아 주요 인사 8인의 호주 내 자산동결, 여행금지
일본	(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러시아 정부에 외국채 등의 일본 내 발행 및 유통 금지 • (교역)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수출입 금지 조치 • (인사)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관계자의 사증 발급 정지 및 자산 동결



GVC 뉴스 더하기 ②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 기업 영향

● 오늘의 주제

-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면서 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은 에너지, 원자재 등의 가격 상승 및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무역협회에서 발간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현황 및 우리 기업 영향(22. 2. 18)> 보고서 내용을 요약, 소개함

● 주요 내용

- 러시아는 우리 수출의 약 1.6%, 수입의 2.8% 비중을 차지하는 10위 교역대상국(2021년 기준)이며, 수출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40.6%), 수입에서는 나프타(25.3%), 원유(24.6%), 유연탄(12.7%) 등의 비중이 높음
- 러시아의 경우 화장품(444개사), 기타플라스틱(239개사), 자동차부품(201개사) 등을 중심으로 국내 수출입 기업들이 다수 포진
- 한-우크라이나 교역 규모는 연간 약 9억 달러 수준에 불과(교역대상국 68위)하나 일부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등)의 경우 對우크라이나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수입의존도('21년, %): 네온(우크라 23, 러시아 5), 크립톤(우크라 31, 러시아 17), 크세논(러시아 31, 우크라 18)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주요 영향>

구분	내용	국내외 영향
공급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의 유럽 천연가스 공급 중단 · 국제유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추가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제조원가 상승 · 사태 장기화시 에너지 수급난
경제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기술이 포함된 첨단제품 수출 제한 - 반도체, AI 등 다양한 품목에 적용 가능 · SWIFT에서 러시아 금융기관 배제(달러 결제 제한) · 러시아 주요 인사/법인의 자산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의 현지공장 부품조달 애로 - 자동차, 가전 등 현지 공장 운영 제한 · 대금 결제회수 지연, 무역 보증 제한, 우회 결제에 따른 비용 증가
환율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블화 평가 절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법인 매출 감소, 환차손 - 러시아 수입 물가 상승, 구매력 감소

- 이번 사태로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對러시아 수출이 차단되면 자동차 수출 및 현지 부품 조달에 난항이 예상되며, 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가 배제될 경우 대금결제 지연·중단에 따른 손해 및 루블화 평가절하에 따른 환차손도 우려

* 2014년 제재 이후 러시아는 자체 국제결제시스템(SPFS, 소위 러시아판 SWIFT)을 구축하는 등 탈 달러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대외거래의 55.7%를 달러화로 결제(2020년 기준)

- 이번 사태 관련 무역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거래위축(22.7%), 루블화 환리스크(21.0%), 물류난(20.2%) 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
- 기업들은 대응책으로 공급선 다변화(30.5%), 무역보험 강화(17.1%), 충분한 재고 확보(14.6%), 결제대금 선물환 체결(6.1%)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응답기업 4개사 중 1개사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 없이 사태를 관망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정책지원 우선 순위로는 무역보험 지원(25.4%), 신속한 정보제공(21.3%), 거래선 다변화 지원(17.2%), 물류비 지원(17.2%)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변



GVC 뉴스 더하기 ③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물류에 미치는 영향

● 오늘의 주제

-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러시아 현지 물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교역에 항공 혹은 해상→육송 물류 활용 중

- 2021년 러시아 총 교역액은 7,894억 달러, 한국과의 교역은 273억 달러로 전체 교역의 3% 차지
- 2021년 총 물동량 847만TEU로, 해상 404만TEU, 항공 148만TEU, 육송 295만TEU 기록, 한국은 러시아와의 교역에 해상 이동 후 육송 방식 및 항공 물류 방식을 활용 중임

● 육송 -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가 대표적인 철도 노선

-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가 주요 철도노선이며, 중국의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R), 만주 횡단철도(TMR)와 연결



주요 노선	길이(km)	경로	소요 일수
시베리아횡단철도	9,288	극동-상트페테르부르크	21일
중국 연결 노선	중국횡단철도	9,082	(中)연운항-(카)드루주바역
	몽골횡단철도	7,753	대련~만주리
	만주횡단철도	7,721	천진~울란바토르

● 해상 - 극동항·노보로시이스크·상트페테르부르크항이 對한국 주요 항만

- 총 67개 항만이 있으며, 총 화물 취급량은 2021년 기준 8억35,200만톤으로 석유 28.5%, 석탄 24.3%, 석유제품 17.6%, 곡물 5.1%, 천연가스 3.9% 등이 주요 수출입 화물
- 노보로시이스크(물동량 1억1,820만톤), 우스트루가(1억259만톤)가 물동량 1,2위 항만이며, 對한국 교역 주요 항만은 극동항(블라디보스톡, 나호트카), 노보로시이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항.

● 한국 - 러시아 간 주요 수출입 경로

- 부산항(선박)→보스토치니항(철도)→모스크바로 이동하는 경우, 27~35일로 최단시간이 소요되며, '22년 2월 기준 11,250USD(40피트 컨테이너 기준)로 최소운임
- 그 외 ①부산항(선박)→상트페테르부르크항(트럭)→모스크바 47일 소요, 운임 14,525USD, ②부산항(선박)→노보로시이스크항(트럭)→모스크바 43일 소요, 운임 12,500USD

● 러시아 진출 우리 기업의 물류 운송에 미치는 영향

- 삼성전자, LG전자, KT&G, 팔도 등은 모스크바 인근에, 현대·기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점 보유
- 현지 거점은 한국 외 지역에서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한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 현지에서 생산품목 부품 소싱 등을 진행하고 있음
- 러시아 제재 개시 이후, 중국횡단철도(TCR)를 통한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유럽으로부터 러시아로의 트럭킹 루트는 공식적으로 차단되지 않았으나, 운송사측에서 해당 트럭킹을 꺼리는 상황이 되어 향후 차단 여부 상시 확인 필요

● 시사점

- 현 시점에서는 러시아 제재로 반도체 관련 물류 감소가 예상되며, 지속 변하고 있는 러-우 사태에 따라 물류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 및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정보 공유 및 사전 정보 확인이 중요



GVC 기초 상식 : 글로벌 가치 사슬(GVC)과 공급망 관리(SCM)

● 오늘의 기초 상식

- '글로벌 가치 사슬(GVC)'과 '공급망 관리(SCM)', 비슷한 듯 다른 용어를 정리해 보자!

● 글로벌 가치 사슬(GVC : Global Value Ch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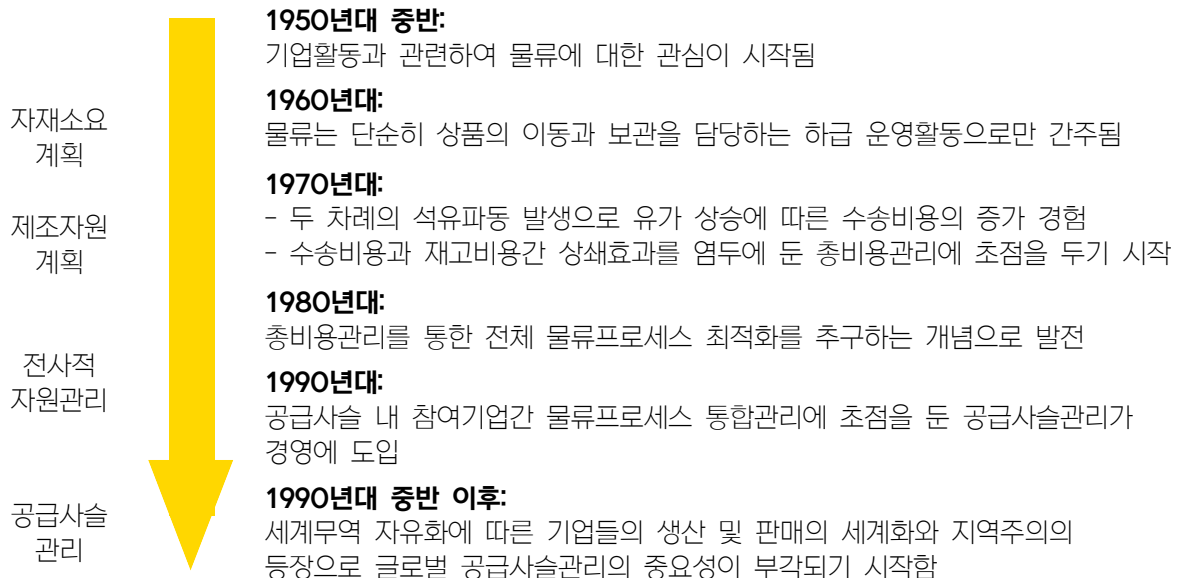
-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경을 초월한 분업이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제품의 생산과정을 세분화하여 각각 가장 효율적인 국가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가치사슬을 확장해 왔음
- 과거에는 수입국에서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종재 교역(전통적 교역)이 주를 이루었으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에 따라 중간재 교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생산 및 판매 과정에 2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게 되면서 각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도 여러 국가로 나뉘어 귀속
- 이에 따라 상품 수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최종 원산지 국가가 독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무역분석 방법에 한계가 드러났으며, 국제무역을 총액 기준(gross value)이 아니라 부가가치(value added)의 귀속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연구방법론 대두

● GVC의 분류

전통적 교역 (Traditional Trade)	단순 GVC (Simple GVC)	복합 GVC (Complex GV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재만을 수출입하는 교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경을 1번 통과하는 GVC 중간재가 수출되어 수입국에서 최종재로 생산되어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경을 2번 이상 통과하는 글로벌 가치 사슬 중간재가 수출되어 수입국에서 완제품으로 가공된 후 최종소비자로 재수출

● 공급망 관리(SCM : Supply Chain Management)

-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초의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상품,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전략



(출처: 전준수 외, 「공급사슬관리(SCM) 기반 구축에 관한 소고(2004)」를 참고해 작성)



GVC 돋보기 : '알루미늄' 품목 GVC 분석

● 분석 배경

최근 중국 광시자치구 바이쑤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등으로 알루미늄 가격·수급 불안이 우려된다는 언론보도 등과 관련하여 알루미늄 품목의 공급망을 아래와 같이 분석 ('20년 기준, 알루미늄 생산 세계 1위는 중국(55.9%), 2위는 러시아(5.8%))

● 종합 평가 : 국내 수급 영향 미미 → 기본적으로 '수급'보다는 '가격' 이슈

- 알루미늄 판재류·박판의 對중국 수입 비중은 높으나, 알루미늄 잉곳(괴)의 對중국 수입 비중(0.2%)이 낮고, 알루미늄 잉곳(괴)으로 판재류·박판 등의 생산이 가능한 바, 국내 수급 영향은 미미함
- 다만, 생산 차질 장기화시, 국제 알루미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 품목 개요

- 전기차 배터리 보급 확대, 차량 경량화 요구 등으로 알루미늄의 수요 증가 중
- 보크사이트(5.2톤) → 산화알루미늄(1.95톤) → 14,000kWh 전력으로 전기분해하여 전해알루미늄(1톤) 생산 (※ 생산원가의 약 40%를 전기요금이 차지)

〈알루미늄 가공단계에 따른 가치사슬〉



● 산업 및 시장 현황 : 국내 제련생산 설비 없고, 주로 잉곳 형태로 수입

- (글로벌) 중국이 생산 55.9%, 소비 60.8%로 압도적 1위 (한국은 소비 7위, 1.7%)
 - 최근 런던금속거래소(LME) 알루미늄 가격은 톤당 3,355불(2.25일 기준)로 '08년 이래 최고치
- (한국) 국내에 알루미늄 제련 생산 설비는 없으며, 전량 알루미늄 잉곳(원재료)을 인도·호주 등에서 수입하여, 알루미늄 판재류·박판 등으로 가공 생산하여 공급

● 국내 수출입 및 수급 현황 : 잉곳 수입 다원화, 국내 생산 안정적

- (원재료) 알루미늄 잉곳(괴)은 전량 수입하고 있으나, 수입처가 다원화되어 있음
 - 수입량('21년) : 148만톤 (비중 : 인도 45.3%, 호주 17.4%, 말련 6.9%, UAE 6.8% 등)
- (제품) 알루미늄 판재류, 박판 등 국내 주요제품 모두 국내 수요대비 생산이 초과

〈알루미늄 제품(판재, 박판 등) 수급 현황(천톤, %)〉

구 분	'17	'18	'19	전년비(%)	
				'20	전년비(%)
내 수	978	1,118	1,101	△1.5	△0.9
수 출	599	678	728	7.4	△0.8
생 산	1,237	1,310	1,401	6.9	1.4
수 입	340	485	428	△11.8	△8.6



GVC 전문가 ① : 김바우·김정현·강성우(산업연구원)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의 배경과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21.11) 보고서 요약

● 연구 배경

- 원자재 가격이 상승시 생산자가 받는 영향은 해당 원자재를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기업들의 가격 전가 행태에 따라 결정됨. 특히 최근처럼 국제 원자재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을 때는 기업들이 비용을 전가(가격에 반영하여 다음 생산자에게 부담을 넘김)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경제 구조하에서 원자재 가격상승의 제조업 생산비 인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

● 연구 방법

- 원자재 가격 변화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수입자료를 토대로 주요 원자재별 가격 변동폭을 측정한 후 이를 토대로 국내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가격파급모형을 통해 추산

(주요 가정)

- 원자재는 원유 및 천연가스, 금속광물(철광석), 비금속광물(구리 및 알루미늄)으로 한정
- 기준시점은 2017년이며, 원유는 기준시점 대비 36.3% 상승, 철광석은 30.3% 상승, 구리·알루미늄은 33.1% 상승을 각각 가정

● 분석 결과

- 상기 원자재 가격 변화(가정처럼 30% 이상 인상시)는 **전 산업에서 2.28%의 생산비 인상효과** 유발
- 특히 **제조업에서 3.46%의 생산비 인상이 예상**. 석유정제(13.00%), 1차금속(6.45%), 비금속광물(3.17%), 화학(2.91%) 순으로 높은 가격파급효과가 예상됨
- 비제조업 가운데서는 사회간접자본(SOC)의 가격파급효과가 6.86%로 높게 나타남
- **원유 가격변화는 전산업에 걸쳐 1.96%의 생산비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제조업은 2.80%로 생산비가 더 민감**, 제조업 중분류 가운데는 석유정제가 가장 민감(12.94%). 이외 원유를 주원료로 하는 화학(2.57%)이나 고무 플라스틱(2.44%), 생산공정상 원유 사용이 많은 비금속광물제품(2.30%) 순
- **금속 및 비금속광물의 생산비 파급효과는 원유에 비해 높지 않으며**, 금속의 경우, 전 산업에 걸쳐 0.29%, 제조업에는 0.62%의 효과. 1차 금속(5.12%)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가격파급효과 수준이 낮음. 비금속광물의 경우, 전산업에 걸쳐 0.02%(제조업0.04%)의 가격파급효과를 보임

	원유 및 천연가스	금속광물	비금속광물	동시 파급 효과
광업	1.52	0.12	0.01	1.65
제조업계	2.80	0.62	0.04	3.46
석유정제	12.94	0.05	0.01	13.00
화학	2.57	0.15	0.19	2.91
고무 플라스틱	2.44	0.10	0.01	2.55
비금속 광물	2.30	0.17	0.69	3.17
1차 금속	1.26	5.12	0.07	6.45
전기장비	0.83	0.70	0.02	1.54
일반기계	0.78	0.42	0.02	1.32
자동차	0.85	0.45	0.02	1.32
기타 제조업	1.06	0.12	0.01	1.19
SOC	6.77	0.08	0.01	6.86
전 산업계	1.96	0.29	0.02	2.28

**GVC 전문가 ② : 요시 셰피(MIT 교수) '22.1.7 조선일보 인터뷰 요약**

※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꼽히는 요시 셰피(Yossi Sheffi) MIT(매사추세츠공대) 교수 인터뷰가 조선일보 WEEKLY BIZ('22.1.7)에 게재된 바, 아래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함

Q : 공급망 위기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A : 올해 중반쯤 최악의 위기는 벗어날 것으로 생각함. 문제는 미국 정부의 정책임. 만약 1.8조불 규모의 새로운 사회 인프라 투자법안이 통과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고 글로벌 공급망이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질 것임

Q : 경기부양책이 어떻게 공급망 문제를 일으키나?

A : 시중에 쌓인 돈은 급격한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수요와 공급 사이에 발생한 이러한 불균형은 공급망 상류로 올라가면서 증폭됨. 이른 바 '채찍 효과(bullwhip effect)'가 발생함

Q : JIT(Just In Time, 적기공급생산)가 공급망 위기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음

A : 잘못된 주장임. JIT를 포기한다고 해서 현재의 공급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 팬데믹처럼 전세계적으로 지속적인 부품 부족에 직면한 상황에선 추가 재고를 유지한다고 해서 생산 이슈를 막을 수 없음

오히려, JIT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공급망 위기 대응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 JIT는 수요 변화를 즉각 반영하는 시스템인 만큼 공급업체와 제조업체, 고객 간의 긴밀한 관계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함. 생산 시스템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 기업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높여줌

Q : 기업 입장에서 공급망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 가장 중요한 대응책은 '유연한 기업 문화'라고 생각함. ①'진실을 자유로이 말하는 규범', ②'계층적인 승인 과정을 거칠 시간이 없을 때 문제와 가장 밀접한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③'업무 마비 시 직급보다 전문지식을 존중하는 것' 등임. 팀원들이 권력(고위층)에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때 정보는 빠르게 이동함. 정보의 중앙 집중화는 조직이 최대한 빨리 문제를 감지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예컨대 자라(Zara)는 문제 발생 시 라인 운영자나 지역 감독관이 고위 경영진의 승인 없이도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공급망이 있는 현지에서 발생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춰야 하는데, '타이거팀'과 '공급망 지도화'가 대표적인 수단임. 공급업체와 고객사가 있는 현장을 직접 누비는 '타이거팀'을 운영함으로써 1차 정보를 수집하고 사전 조치도 취할 수 있음. 공급망 AI(인공지능) 시스템인 레질링크(Resilinc)는 공급망 지도를 만든 다음 AI 분석으로 문제가 될만한 지역과 공급업체들을 미리 파악해 통보해 주기도 함. 레질링크 AI는 이미 2019년말 중국 우한 지역의 알 수 없는 폐렴을 포착했고, 2020년 1월 4일 고객들에게 경보를 발령한 바 있음

● 평가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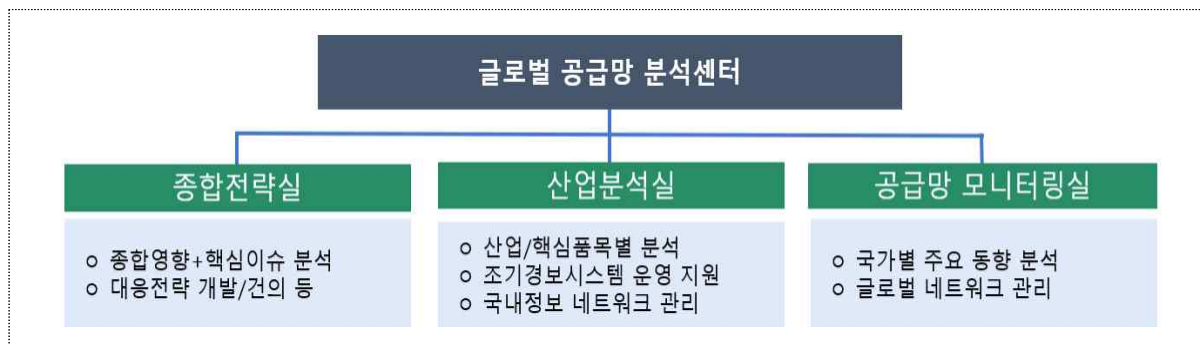
- 요즘 업계에서는 JIT가 맞는지, JIC(Just In Case)가 맞는지 논란이 큼. 그러나 결국 뭐가 맞고 뭐가 틀린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막힘없는 흐름과 현장 인력에게 권한 부여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리고 현장을 기반으로 정보를 모으되, AI를 결합해야 사람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GVC 소식통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Korea Center for GVC) 출범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은 '22.2.9(수) 10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출범식 행사를 개최
- 이 날 행사에는 산업부 문승욱 장관, 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KOTRA 유정열 사장과 반도체·자동차·철강·디스플레이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 임원들이 참석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
 - ①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
 - ②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발견시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을 지원
 - ③ 또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조직은 종합전략실, 산업분석실, 공급망 모니터링실 등 3개 실을 두고, 무역협회, 코트라 등 기관의 전문인력에 더하여, 업종별 협·단체의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센터장은 무역협회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위원장이 맡음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조직도 〉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매주 1회(목요일) 발간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kotra(www.kot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 송부 중
 - 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형태로 발간물 작성 (PDF 파일)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문의 및 제안
 - 해당 품목의 중요성·파급력 등을 검토하여 공급망(GVC) 분석 대상으로 선정
 - 구체적인 HS 코드를 알고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각종 무역통계 정보 제공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의 세션에 따라 분량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
 - 제출한 글이 내부 심사를 거쳐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

● 산업부 및 유관기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기업 지원체계 가동 중

- 산업통상자원부와 유관기관들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업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문화된 대응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 중
- 수출통제, 무역투자, 공급망 등 분야별 기업 대응창구를 운영하여 업계 애로를 실시간 접수 및 대응 지원
- 특히, 수출통제 관련하여 미국의 對러 제재 발표시행과 동시에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하여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절차 등 상세내용을 공유하고 업계 대응을 지원 중

〈분야별 대응창구 및 지원내용〉

분야	대응창구	지원내용	비고
①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 · 수출통제 제도문의 02-6000-6384 / 6440 / 6498 / 6499 · 통제품목 문의 02-6000-6381 ~ 3	對러 수출통제 상세 내용 및 對러 통제품목 사양 정보 등 안내	기존 對러 제재 (‘14,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통제 절차 등 旣 안내 중
②무역투자	KOTRA · 무역투자24 전담창구 1600-7119(2 → 4)	“무역투자24” 온·오프 전담창구 운영 진출기업 동향 점검, 비상연락망 가동	
	한국무역협회 · 러-우 사태 긴급대책반 1566-5114	무역업계 수출입 애로 접수 및 대응 지원	
③공급망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 1670-7072	소부장 수급애로·간접피해 등 기업 애로 접수 및 대응 지원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 044-203-3861~2	품목별 국내외 공급망 정보 제공	무역협회 · 코트라 협업

● EU 공급망실사법 대응 웨비나 개최

※ EU는 국내외 공급망 협력업체의 ESG 요인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

- KOTRA 브뤼셀무역관과 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함께 EU 공급망실사법 대응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
 - (법안 주요 내용) ①전체 유럽기업의 1%인 1만 3천개 기업에 적용될 전망(직원 수 500명 이상, 전 세계 순매출 1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 대상), ②한국 등 역외국 기업 4,000개에도 적용될 것으로 추정, 고용·매출액 기준과 함께 EU기업과의 사업관계가 주요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 3.7(월)限 신청 가능, EU 권역 기업들과 비즈니스 추진 중인 우리 기업인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2년 3월 8일(화) 17:00~18:00 (한국시간) [브뤼셀 현지시간 9:00~10:00]
 - (참가방법) Zoom 활용한 온라인 생중계 접속 (무료)
 - * 참가신청 https://us06web.zoom.us/webinar/register/WN_BnUjL1m7SkqL4gSZlOjDVg
[신청기한 3.7(월)限]
 - (프로그램) EU 공급망실사법 초안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등 (ReedSmith 법무법인 김진우 변호사)
 - (문의처) KOTRA 브뤼셀무역관 +32-2-205-0085 / jiyeonkwon@kotra.or.kr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32-2-639-0990 / kba@kba-europe.com
 - (참고사항) 법안 발표 연기 시 웨비나가 연기될 수 있음



더 찾아보기 ① : '지리의 힘'(팀 마셜)을 통해 본 우크라이나 위기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 '지리의 힘'(2015년, 팀 마셜 지음)이라는 책은 이러한 국제 관계의 역사·지리적 배경을 잘 설명해주는 책이며, 아래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부분을 요약 발췌하여 소개함

● 주요 내용

- 푸틴 대통령은 소비에트 마지막 대통령인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썩 좋게 보지 않음. 그는 고르바초프 때문에 러시아의 안보가 취약해졌다고 원망함. 푸틴은 1990년대의 소비에트 연방 붕괴를 두고 금세기의 주요한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말함
- 1세기 전만 해도 미국의 군대가 모스크바에서 겨우 몇 백 킬로미터 떨어진 폴란드와 발트 해 국가들에 버젓이 주둔하리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또한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가 있는 지 고작 15년 이 지난 2004년 무렵에 러시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나토나 유럽연합에 가입하리라고 그 누가 상상했겠는가?
- 러시아라는 개념이 성립된 시기는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감. 현재 우크라이나인 드네프르강 연안의 도시들과 '키예프 공국'으로 알려진 동슬라브 부족들의 느슨한 연합 형태가 그 기원임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이나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부동항(不凍港)인 크림 반도의 '세바스토폴항'의 임대차 계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신중한 중립국의 행보만 보인다면 우크라이나를 용인할 수 있음. 러시아의 외교 정책 엘리트가 보기에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은 나토 가입의 위장에 지나지 않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일종의 레드라인(red line)을 넘는 행위로 봄
- 2014년 푸틴은 러시아어를 쓰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크림 반도를 합병했으며, 2014년 4월 우크라이나의 자치공화국이었던 크림 반도는 러시아와의 합병을 결정하는 주민 투표에서 90퍼센트 이상이 찬성을 함에 따라 러시아에의 합병을 결정함. 러시아에게는 무엇보다 크림 반도에 있는 세바스토폴항을 손에 넣는 것이 절실했음. 러시아에게 세바스토폴은 단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부동항임
- 크림 반도는 후르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1954년에 우크라이나에 양도하기 전까지는 2백년 동안 러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음. '실재하는 위협으로 간주되는 것과 딱딱뜨릴 때 강대국은 힘을 사용한다'(초심자를 위한 외교의 제1교훈)를 감안하면, 푸틴의 크림 반도 합병은 서구가 우크라이나를 근대 유럽과 서구 영향권으로 끌어넣은 행위의 대가로 봐야 함
- 2014년 우크라이나가 벨기에나 미국의 메릴랜드에 버금가는 영토를 잃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려 달려 오지 않음. 미국은 지리적으로 멀었고,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해 제한적인 제재만을 가함. 이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겨울용 난방 연료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임

● 시사점

- '지리의 힘'은 2015년에 발간된 책이지만, 7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읽어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지식과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단편적인 뉴스가 제공할 수 없는 정보는 결국 책, 논문 등과 같은 자료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더욱 복잡해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급망 관리는 SCM을 넘어, 국제정치, 역사, 지리 등의 배경을 토대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더 찾아보기 ② : 유익한 유튜브 채널 소개

1. '김지윤의 지식 Play', 2. '조승연의 탐구생활'


※ 최근 다양한 유튜브 채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급망과 관련하여 보다 깊은 내용(국제정치, 역사, 지리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해주는 2개의 채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김지윤의 지식 Play'

● 김지윤 소개

- 연세대 정외과 졸, UC버클리대 공공정책학 석사, MIT대 정치학 박사
- 前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여론계량분석센터장)
- 現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출연, '김지윤의 지식 Play' 유튜브 채널 운영
- 저서 : '내 권리는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거는 어떻게 대중을 유혹하는가' 등

● 유튜브 채널 소개


자료 화면	주요 콘텐츠 (최근)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되고 중국은 안되는 이유? (지리의 힘으로 알아보는 지정학) • 슈퍼볼 하프타임쇼, 힙합 레전드들이 모인 특별한 이유가 있다? • 예멘의 전쟁이 멈추지 않는 이유? (중동패권싸움의 한복판, 예멘) 	<p>미국 정치 전문가로서 미국을 비롯하여 국제정치와 관련한 내용(역사, 문화 등까지 포함)을 알기 쉽고 풍부하게 설명함</p> <p>또한, 전문가 인터뷰, 책 같이 읽어오 등의 코너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정보도 다루고 있음</p>

2. '조승연의 탐구생활'

● 조승연 소개

- 뉴욕대학교 스톤 경영대 학사
- KBS라디오 '조승연의 굿모닝팝스' 진행했으며, '비정상회담'(JTBC), 라디오스타(MBC) 등 출연 경험
- 저서 : '리얼:하다', '시크:하다', '플루언트', '언어천재 조승연의 이야기 인문학' 등

● 유튜브 채널 소개

자료 화면	주요 콘텐츠 (최근)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나라별 교육 방식 차이와 육아법 (SAT, 수능, 바칼로리아) • (러시아 vs 우크라이나) 외신 언론 보도 비교하기 • (원헨 : 전쟁의 문턱에서)로 보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원인 	<p>미국, 프랑스 등에서의 유학 경험을 통해 영어, 불어 등 다수의 외국어를 구사하며 외국 역사문화에도 조예가 깊어 국가별 비교에 강점이 있음</p> <p>또한, 책과 영화 등 친숙한 소재를 통해 역사·문화를 알기쉽게 설명함</p>

글로벌 경제지표(22. 3. 2. 수)

[환율]

	'20.12.31	'21.12.31	'22.1.31	'22.2.24	'22.2.25	'22.2.28	전일比	21말比
₩/U\$	1,186.30	1,188.80	1,205.50	1,202.40	1,201.60	1,202.30	0.06	1.14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203.80	1,203.00	1,203.20	1,203.20	0.02	1.11
₩/CNY	166.04	186.51	189.56	190.15	190.32	190.52	0.11	2.15
₩/Y100	1,051.19	1,032.48	1,044.90	1,050.13	1,043.06	1,040.86	△0.21	0.81
Y/U\$	103.34	115.14	115.36	114.50	115.20	115.51	0.27	0.32
U\$/EUR	1.2279	1.1318	1.1151	1.1247	1.1217	1.1165	△0.46	△1.35
CNY/U\$	6.5305	6.3681	6.3567	6.3173	6.3149	6.3105	△0.07	△0.90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2.28 (전일)	'22.3.1	전일(2.28比)	'21년최저比	'21년말比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96.86	98.71	1.9	97.2	28.0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139.10	144.45	3.8	65.5	19.6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9,976.00	9,976.00	0.0	28.6	2.9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3,450.50	3,495.50	1.3	79.1	24.6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5,240.00	25,450.00	0.8	60.0	21.6

[반도체]

	'20	'21	'21.11	'21.12	'22.1	2.23	2.24	2.25	2월(~25)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23	3.42	3.73	3.95	3.95	3.95	3.88
(%, YoY)	△21.9	8.0	14.6	8.0	7.1	△4.9	△6.0	△7.6	△0.7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7.35	7.45	7.54	7.69	7.69	7.69	7.65
(%, YoY)	7.0	32.8	30.5	32.8	33.7	32.7	32.7	32.7	33.1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8	'22.2.11	'22.2.18	'22.2.25	전주(2.18比)	'21년말比
운임지수	5046.66	5010.36	4980.93	4946.01	4818.47	△2.6	△4.5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2.21	'22.2.22	'22.2.23	'22.2.24	'22.2.25	전일(2.24比)	'21년말比
BDI	2217	2045	2148	2244	2187	2076	△5.1	△6.4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sekyung_lee@kotra.or.kr

협력기관

